

크리스찬의 자유 [1]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말씀 [요한 8:31-32, 흠정역]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1. 노예된 영혼의 명제: 자유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노예들이 아니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종 살이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역사에는 여러 번 노예로 또는 포로로서 생활했던 경험을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노예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죄의 노예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 8:34-3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을 가진,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속박된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곧 깨닫게 된 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받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죄가 인간들 속에 성취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내어서 노예 상태로 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인생에서 맨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마의 화신인 뱀의 간계에 넘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나 숨고자 하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사귀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바로 그러한 사귀음의 시간을 가지고자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창 3:8] 그들이 그 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과 사귀을 갖고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비록 930 세로 거의 천년을 장수하였고 많은 자식들을 생산하였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사망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던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받은 사망의 저주와 함께 죄와 사망의 멍에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신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런 운명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향유했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 8 장 31-32 절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행히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 장에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에 대한 구절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나는 이 로마서 8 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믿는 자의 네가지 자유에 관하여 논하신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네가지 자유는 첫째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패배로부터의 자유, 셋째는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넷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정죄받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원하셨지만, 율법에 죄를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들이 죄인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자신을 희생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죄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거룩한 희생물로서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모세 율법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율법의 기준에 따른 죄인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법정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가 없는 무죄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모두 죄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로마서 3 장 22-23 절에 선언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죄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정죄, 즉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롬 2: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누구에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분노심이나 증오심을 품은 적도 없고,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한번도 속인 적이 없고, 남의 것을 한번도 훔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죄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도 여러가지 죄를 많이 범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었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위배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과 화평을 이루라는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함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당기시는 손길을 무시하고 우리는 죄와 육체의 달콤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 즉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설득당하고 그런 목적 추구의 과정에서 남을 속이고, 부정한 행위를 하며 도덕적 타락 행위의 유혹에 약간의 거북스러움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넘어가서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분의 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심판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예수 그리스도, 즉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원칙들과 도덕적 기준들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일에 여러분을 변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바드 법대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대언자 이사야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로서 이 심판의 법정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불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아직도 죄의 정죄함을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심판석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유죄의 낙인을 받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처지를 피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아직 제공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로마서 8 장 첫 두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따라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께 자신의 가슴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의 계획을 맡기고 매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격려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인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보상은 사망, 즉 신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모두 포함하여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신체적으로 사망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 밖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이 훌륭한 천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자 목록, 즉 정죄받은 사람들의 목록에서 그 이름이 제거됩니다. 이로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인생 전환 과정은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형수 감방에서 사형수로 분류된 죄수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형수는 이제 감옥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얼마전 나는 바로 그런 얘기를 담은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안에서 동료 죄수들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심한 학대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감옥 밖에서 아들의 판결을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해 달라고 사법 당국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형수인 아들을 감옥에서 면회하러 가다가 기차 안에서 심장 마미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판사가 그의 케이스를 재심하였고, 범죄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그의 판결을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그 죄수는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복역하다가 마침내 풀려나서 이제는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고 자유스러운 상태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과정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자유로운 의지로서 그 분을 여러분 가슴 속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훌륭한 자유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빠져 살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3. 패배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향유하는 두번째 자유는 자신의 육체와 이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면서 살던 과거의 생활을 떠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고 그 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환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던 인간성과 이 악한 세상의 각종 유혹을 섬기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주 예수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죽지 않으면서 우리 육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3-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초대 크리스찬들은 물 속에 침잠하는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는 분이 받는 분의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담그고 나서 다시 물위로 일으켜 세우는 식의 세례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세례가 그러했고 주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 그런 방식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시에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이 죽음에 들어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과정을 침례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로마서 6:9-11]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사망과 부활의 경험을 하심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로부터, 즉 육신을 섬기거나 기쁘게 해야 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2 편에 계속]